

목회의 본질

- 옥한흠(기학연 이사, 국제 제자훈련원장/목사)

제가 아는 어떤 유능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나온 후 제주도로 내려가서 남의 땅을 빌려 밀감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는 생각이 독특해서 기존의 재배방식을 쓰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어서 유기농법을 시도하였습니다. 풀을 베고 퇴비를 만들어 뿌리며 남들보다 몇 갑절 힘들게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우니 생산량도 작고 모양도 불품없는 밀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려 해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뿌려 키운 빛 좋고 모양 좋은 밀감에 비교하니 소비자들도 외면하여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농법으로 꾸준히 계속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부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많은 과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주도 밀감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써서 보기 좋게 키운 과일이나 농산물보다 유기농으로 키운 농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이의 밀감은 내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다른 밀감농장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다들 밀감밭을 뒤집어엎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도 이러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목회란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일주일단위의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심이 되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등으로 자라나는 어린 성도를 가르칩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선배들의 전통적인 목회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교회 95% 이상은 똑같은 모습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은 그런 목회에 익숙해져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의 목회를 시도하면 거부하고 항의하며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몸에 익숙해진 패턴대로 해야 그것이 목회요 성경적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목회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원동력이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20~30년 전만해도 목사님이 심방 오신다 하면 많은 교인들은 기대하고 좋아하며 준비하였고 심방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목회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배요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목회에는 한 가지 심각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마치 제주도의 밀감농장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기 몸에 편하고 하기 좋은 방식으로만 하려다가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회가 과거에는 굉장한 강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약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회가 너무 예배 일변도로 흘러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에서 열까지 틀에 박힌 예배중심인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틀에 박힌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처음에 예배를 강조할 때는 참으로 신선한 목적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배 일변도의 목회에서는 예배 중에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은 바로 병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오늘날 우리가 주보에서 볼 수 있는 순서의 예배만이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언과 예언의 통역과 성도의 교제-만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식을

갖춰야만 예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교단이 주장하는 형식만이 예배일 수는 없으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에는 굉장한 영적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특권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10명 내외의 적은 인원과 함께 3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말씀만으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평신도가 선생이 되기도 하며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한 일년 동안 하루 세 시간씩 작은 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훈련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수 만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말씀 앞에서 형식의 옷을 벗고 모든 것을 나누는 제자훈련 중에는 목사도 평신도들의 신앙과 삶에 많은 도전을 받고 쇼크를 받기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제자훈련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아들, 딸, 모태 신앙자, 교회 고위 직분자 등과 같은 사람들이 5~6개월 제자훈련을 같이 하다보면 근본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전혀 중생을 받지 못한 생짜배기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예배출석을 잘하고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인정해 왔다면 큰일 날 뻔 했구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영적인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일변도로만 간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필터없는 목회를 하다보니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복잡 다단한 오만가지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검증이 안됩니다.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분명해야만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일변도만으로 목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시험을 스스로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좀 더 폭 넓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는 가운데 은혜하는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성도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어떤 틀에 갇혀있지 말고 그 틀을 벗어난 삶 전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치려면 목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에 안겨 있어야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버린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젖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높은 경지까지 오르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가르치는 교역자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가르치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뒤처짐이 없을 것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이 대 유행이었고, 사랑방에서는 남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배웠으며, 안방에서는 부인들이 모여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로 인하여 얼굴이 변화되고 우상숭배로 찌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이 한국교회를 일제강점기와 6.25의 환란을 이겨내고 부흥하게 하였으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목회의 현장에 가보면 교회인지 학원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입

니다. 성경공부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코스들이 너무 많아 마치 학원의 강좌들 같습니다.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자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르치는 방법은 99%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강사 한명이 준비하여서 설교하듯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강의를 듣고, 배우고, 노트하며 강의를 마치면 누가 잘 배웠는지 질문해서 대답 잘하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연역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표는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얼마만큼 많이 기억하느냐, 얼마만큼 그 기억력이 오래 가느냐,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만 망치질을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 많이 얹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좀 순진했을 때, 호미 메고 밭 갈고 그러던 시절에는 정보가 귀했기 때문에 성경말씀 하나만으로도 흥분할 수 밖에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흔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골치가 아픈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계속 머리를 타겟으로 해서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기억하느냐 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줄때에도 대답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가르쳐놓고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적으로 많이 알려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머리에 뿔이 나 버립니다.

송아지를 보면 뿔이 없을 때는 잘 들어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뿔이 조금씩 나면 여기저기 들이 받으면서 뿔을 날카롭게 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는 말씀 가운데,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교만해지고 자신의 지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분란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너무 단순했던 것입니다. 계속 세상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타겟은 심령에 있습니다. 영혼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변화시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데 가르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번을 배워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 안하면 안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반복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배워서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배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며 가르쳐도 배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안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점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젠 소그룹과 같은 곳에서 귀납법적인 성경공부로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가 학생이 되어서 서로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00명, 200명씩 앉혀두고는 책임 있게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것을 잘 못 합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너무 힘이 드니까 잘 안합니다. 교인들도 목사님을 앞에 두고 자기의 모든 외식의 옷을 벗어야 하다보니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병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목회가 한국교회에 남겨준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세 번째, 전통목회는 본의 아니게 평신도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통 목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 뿔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 소명을 받고 뛰는 사람은 성직자요 목회자이지 평신도라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은근히 자신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고 평신도들은 보통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설교 듣고 헌금하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저의 표현이 심했는지는 몰라도 50~6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식이 점점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평신도들은 어떤 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나는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정도로 즐기고 살아도 괜찮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평신도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통목회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뿔 수 있는 평신도를 찾으면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자기를 불태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혼자 뛰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주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를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돕는 평신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는 평등합니다. 몸 안의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작은 콩팥 하나가 잘못되어도 온 몸이 붓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진짜 별것 아니어 보이는 작은 지체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평신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소명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세워야 하고 평신도를 깨워야 합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는 함께 뛰어야 합니다. 평신도가 들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엄청난 달란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정말 조금만 준비가 되면 한국을 바꾸어 놓고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 두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목회도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방식대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진짜 목회의 본질인가 찾아서 그 본질에 의거해서 현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전통목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너무나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 경직되어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후유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숫자도 많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가 사회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목회는 성경말씀에 기초하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목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일변도의 목회, 잘못된 가르침의 방법, 평신도를 깨우지 못하는 목회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도록 해야 합니다.